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향기

민주당, 야합 중단하고 독자 대선후보 내야



김형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현(주)넥스트 투자 고문>

박상천 대표가 지금 할 일은 모든 정치적 야합을 중단하고, 민주당 독자 대선후보를 내기 위한 밑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집권에 있다. 정치적 개론 첫 장에 나오는 말이다. 민주당의 존립 목적도 집권이다. 당연히 2007년 12월 대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민주당의 스스로가 대선후보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어떠한가. 과연 집권의지가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은 몇 차례 호남에서의 재보선 승리에만 취해, 여권통합의 중심점에 서겠다는 헛된 망상에만 젖어 있다.

이른바 당을 깨고 '제3시대'에서 뭔가 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랬자 그들의 시선은 고작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에게만 고정되어 온 것이 현주소다.

복잡한 셈 법 그만두라

그런데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도 임이 먼저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했다. 대표에 김한길의원까지 선출했다. 급한 대로 열린우리당 탈당의원들만 따로 살릴을 꾸린 것이다. 김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오늘의 창당으로 제3지대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련했으며 최종 목적지인 대통령을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어진 대통령을 위한 '알박기 정당'의 탄생을 알린 것이다. 창당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이다. 낸센스도 이런 낸센스가 없다. 이들 통합신당과는 독자창당에 앞서 민주당과의 통합협상에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나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통합과들은 '민주당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민주당 지도부들이 나서 민주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탈당시키는데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 해체가 아닌, 민주당과의 합당은 '도토민주당'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통합신당과의 주장에 동의했기 때문이란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도 민주당을 지켜 온 당원들의 의사는 물론 민주당의 정통성까지 부정할 정치적 야합이다.

지난 4.3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사수를 주장하며 대표로 선출된 박상천대표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듯하다. 9일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소통합' 협상 재개 문제에 대해서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고 김한길 대표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걸음 더 나가 열린우리당과의 통합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내 책임 있는 인사들과 열린우리당 내외 중도개혁 세력을 적극적으로 만나 중도개혁 세력 대통령 방안과 강력한 중도개혁 정당 건설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이다.

게다가 "당내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좋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손 전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보를 탐내는 것이 과연 공당의 대표로서 합당한 행동일까?

'불임정당'이 되고 말 것인가

진정 민주당 중심의 통합론을 주장하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당과 국가의 장래에 책임감을 느끼고 과감히 대선에 뛰어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민주당내에는 이미 출마의사를 표명한 김영환 전 의원이 있고, '미스터 클린'으로 사랑받는 조순형의원도 있다. 꼭 이들이 아니라고 해도 민주당내에서 경선에 뛰어들 자격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내는 것이 박상천대표의 할 일이다. 그런 다음 벌어진다면 통합이나 후보단일화를 주장해도 늦지 않다.

아니 오히려 동력을 받을 것이다. 만약 이번 대선에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내면, 민주당은 결국 '불임정당'이 되고 만다. 박상천 대표가 지금 할 일은 모든 정치적 야합을 중단하고, 민주당 독자 대선후보를 내기 위한 밑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살 수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해외로 줄줄 새는 산업기밀 대책 서둘러야

현대·기아자동차의 핵심기술이 전·현직 직원 '산업스파이' 일당에 의해 중국으로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차체 용접·조립기술과 신차개발 계획 등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 57건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기밀 유출이 휴대폰,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자동차마저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 같은 기밀 유출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산업기밀 유출 건수와 그 피해는 날로 급증하는 추세다. 국경원 산업기밀 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96건으로, 경제적 가치만도 95조9천억 원에 이른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는 이미 100조원을 넘은 것은 물론 수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국내 산업계 기술 보안 수준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현대·기아차 산업스파이 일당도 조직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손쉽게 내부 비밀자료를 빼낸 것으로 밝혀져 보안조치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산업기밀 유출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부(國富)가 순식간에 유출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엄청난 돈과 시간, 인력 등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도둑맞으면 기업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보안의식 부재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술 보안 부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 기술유출은 바로 국부 유출이라는 위기의식이 요구된다. 정부도 국가차원의 선진화된 산업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해 날로 지능화, 대형화해 가는 산업기밀 유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방 옥죄는 중부세 배분기준 변경 안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중부세(중부세)의 배분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중부세 배분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줄이는 대신 교육과 사회복지 등에 투입키로 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교육 및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내세운 이유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분을 중부세로 전액 보전한 뒤 나머지도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왔다. 배분된 중부세는 일반예산처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기준이 바뀌면 지방재정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각각 428억원과 664억원의 중부세를 배분받았다. 앞으로는 배분액의 일정액이 사회복지와 교육 예산으로 한정되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득권이나 세수

가 줄어드는 마당에 중부세 배분액마저 축소되면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떤 세금이건 시대상황에 따라 용처와 배분방식을 변경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중부세 배분기준 변경은 부동산시장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방식까지 법적으로 정해 놓은 마당에 시행 불과 2년 만에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 및 교육부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부세는 연간 3억 원 선에 육박한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중부세에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빼앗아 중앙정부를 충당하는 것은 편법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부세 배분기준 변경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탐지기기는 당나귀였다. 고대 인도에서는 당나귀 꼬리에 막대를 찰 뒤 어두운 마구간에 매어 놓았다. 범죄 용의자를 그곳에 들여보내면서 "죄가 있는 자가 신(神)의 당나귀 꼬리를 잡으면 손이 검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진범이라면 꼬리를 잡지 않을 거라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탈리아 법의학자 롬브로소(Cesare Lombroso)는 1895년 맥박과 혈압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기를 고안했다. 그는 신체 변화를 관찰, 법인을 검거했으며 거짓말탐지기(Lie Detector)의 시적이 됐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의 심적 변화에 따른 혈압·맥박·호흡 등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기록한다. 다윈기록기(Polygraph)라고도 부르는데, 미국의 경우 1924년부터 피의자 신문에 사용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2004년 2천여명원이 넘는 미국산 기계를 도입, 피의자들을 '태우고' 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2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23명(47.0%)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진실'은 86명으로 32.8%에 그쳤다.

문제는 '판단 불능'이 20.2%(53명)나 됐다. '판단 불능' 피리를 잡으면 이런 한계에 걸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진범이라면 꼬리를 잡지 않을 거라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능력에 갖춘 경우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피검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의 작성과 검사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이다.

'보복 폭력' 혐의로 문에 답변하는 사람의 심적 변화에 따른 혈압·맥박·호흡 등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기록한다. 다윈기록기(Polygraph)라고도 부르는데, 미국의 경우 1924년부터 피의자 신문에 사용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2004년 2천여명원이 넘는 미국산 기계를 도입, 피의자들을 '태우고' 있다. 지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김성훈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고3 청소년의 평균키는 170cm였다. 하지만, 요즘 평균 신장은 174cm에 근접하고 있다. 부모도 입장에서 자신의 아이가 평균치보다 작다면 마음 편할 리 없다. 키가 큰 '콩다리'를 사랑하는 세대 때 문인지 한국청소년상담원에는 작은 키 때문에 고민하며 상담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그러나 작은 키의 원인이 유전적 인 것만은 아니다. 연구 통계를 보면 선천적 요인은 불과 23%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환경, 즉 영양 섭취나 운동 등 후천적 인 원인이 77%나 차지한다. 키가 얼마나 자라는 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릎뼈와 발 뒷

진·소화불량·복통·설사·변비 등 소화기계 질환이 잦은 아이들의 경우 성장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소모하게 돼 성장에 지장을 받는다. 따라서 이 같은 성장에너지 누수시키는 성장장애 질환을 같이 치료해줘야 한다. 또한, 요즘 아이들은 학원이며 컴퓨터에 매달려 뛰어노는 시간이 적게 돼 척추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척추 측만증이 남학생에 비해 6~8배 이상 많이 생겨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키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키가 크려면 편식하지 말고 세 끼 꼬박꼬박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키 키우는 것도 정도가 있다

근치 뼈, 골반뼈의 성장판 상태에 대한 전문적 검진이 필요하다. 키가 크는 것은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키가 자랄 수 있고, 닫혀 있게 되면 성장은 멈추게 된다. 그래서 성장 치료의 적기는 성장판이 닫히기 전이어야 한다. 주로 남학생의 경우는 중3~고1 정도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중1~중3 정도에 성장판이 닫히기 쉬워 적어도 여자 아이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3~4학년, 남자들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이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2차 성징이 빠리와 사춘기가 빠르게 오는 아이들은 그만큼 성장할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성호르몬은 성장판을 빨리 닫히게 하기 때문이다. 비만이거나 잦은 성인 문화를 접하는 경우, 또는 가정 불화 가정의 아이들 경우에도 조속해서 2차 성징이 빠를 수 있다. 여기에 축농증·비염·아토피성 피부염·야뇨증 등의 잦은 병치레와 식욕부

진·소화불량·복통·설사·변비 등 소화기계 질환이 잦은 아이들의 경우 성장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소모하게 돼 성장에 지장을 받는다. 따라서 이 같은 성장에너지 누수시키는 성장장애 질환을 같이 치료해줘야 한다. 또한, 요즘 아이들은 학원이며 컴퓨터에 매달려 뛰어노는 시간이 적게 돼 척추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척추 측만증이 남학생에 비해 6~8배 이상 많이 생겨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키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키가 크려면 편식하지 말고 세 끼 꼬박꼬박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신혼부부의 '지갑'으로 전락한 폐백, 의미 퇴색

결혼식의 본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폐백은 가풍이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그 풍습이 다르다.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신부에 대한 축하와 가족과의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최근 신혼부부들은 폐백을 마치 신혼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경제적 청구로만 이용하는 것 같다. 특히 폐백의 경우 신

랑측 가족들이 참석하는데 그만큼 시집 식구들에게 부정을 쥐 본래 성스러운 의미를 해치고 있는 것 같다. 결혼식 이전에 이미 신랑측 가족들을 보기 때문에 복잡한 예식장에서 굳이 신랑측 가족들만을 상대로 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해야 한다면 신랑측뿐만 아니라 신부측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순정·광주시 동구 서석동

기고

서경숙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매년 9천여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해마다 4천여명만이 입양을 통해 국내·외에서 가정을 찾고 나머지 아동들은 시설에서 자라아한다. 이중 국내가정에 입양되는 경우는 작년 1천3백명에 불과하며 특히, 장애 아동의 입양은 1% 미만으로 극도로 낮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그동안 입양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은밀하게 입양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아동은 가족의 구성원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문제는 우

졌다. 그렇게 된다면 비밀입양을 지양하고 공개입양으로 많이 전환되리라 여겨지며 점차 국내입양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해 본다.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은 1930년대 페르 알빈 한손총리가 '국가 내의 가장'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부터 복지국가로 자리 잡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고 버려진 아이들, 어려운 이웃들을 개인이 아닌 내 가족으로 보살핀 것이다. 금년부터 우리 정부에서도 입양가정을 위하여 입양수수료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액 인상, 입양휴가제 도입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저조한 것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약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결여,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 정부의 경제적 지원 빈약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5월 11일은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입양의 날'로써 금년에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입양의 날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이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입양이 특별한 현상이 아닌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하

(공무원에 한함.) 등 다양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입양문화의 수준은 곧 우리 사회의 성숙도나 인권 의식, 복지수준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제는 과거의 단일민족사회를 벗어나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하는 '열린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세계가 하나되는 세상 더 이상 가정은 한 혈통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는 혈연이 아닌 사람의 만남을 시작할 때이다.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입양이 가족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인정되어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국내에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장>

은행노조의 업무시간 단축 시도는 근시안적 발상

은행원들은 자타공인 고액연봉자들이다. 그 고액연봉으로 배를 두들기고 있는 은행원들이 또다시 은행 영업시간 단축을 강행하려 한다고 한다. 고액연봉자들이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현재도 청구에서 고객들이 많아서 대기표를 받아 30분씩 기다리는 데, 1시간이나 업무시간을 단축하면 고객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묻고싶다. 일전에 미국에 가서 본 일인데 금융강국인 미국의 은행들은 대부분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우리는 현재 9시 30분에 열고 오후 4시30분부터 닫지 않나?

거기다가 미국의 일부 은행은 토요일에도 영업을 한다. 그리고 스웨덴은 오후 5시30분까지 영업하며 호주, 홍콩, 프랑스도 오후 4시30분까지는 은행 문을 연다고 한다. 은행원들이 지금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니 일은 좀 적게 하겠다는 발상일뿐이다. 이제 더욱 FTA가 본격 발효되면 은행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텐데 당장 눈앞의 편리만 생각하는 은행원들이 한심할 뿐이다. 그때가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계 은행으로 몰려가면 애국심에 호소할건지 묻고싶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for both the print and online versions of the newspaper.